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경제산업위원회

1. 감사 개요

□ 감사 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6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효율적으로 감시·감독하고, 행정·예산 집행 등을 평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감사 기간 : 2022. 11. 2.(수) ~ 11. 15.(화), 14일간

※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11. 2.(수) ~ 12. 9.(금), 39일간

□ 감사 대상기관 : 5개 기관

- 도 국·청(3) : 경제국, 산업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 출자·출연기관(2) : 강원도경제진흥원, 강원중도개발공사
- ※ 해외본부(일본·베트남 본부) 감사 취소

□ 감사반 편성

- 감 사 반 :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8명(위원장 김기철)
- 사무보조 : 5명(경제산업전문위원, 의정팀장, 지원 3명)

□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정 별	시 간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 고
11.2. (수)	14:10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 위원회 회의실	
11.3. (목)	10:00	경제국	▪ 위원회 회의실	
11.4. (금)	10:00	산업국	▪ 위원회 회의실	
11.5.(토) ~ 11.6.(일)	2일간	주말(공휴일)		
11.7. (월)	1일간	▪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리		
11.8. (화)	14:00	강원도 일본 본부, 베트남 본부	▪ 추진상황 점검 화상회의	일본, 베트남 본부 현지감사 취소 (11.7.~11.11.)
11.9.(수)	10:00	강원도경제진흥원	▪ 위원회 회의실	
		강원중도개발공사	▪ 위원회 회의실	
11.10.(목) ~ 11.11.(금)	2일간	▪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리		
11.12.(토) ~ 11.13.(일)	2일간	주말(공휴일)		
11.14.(월)	1일간	▪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리		
11.15.(화)	1일간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Ⅱ. 주요 감사실시 내용

① 경제국 소관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진술 요지
○ 청년어르신일자리과가 한 개의 팀으로 개편이 되었는데 효율이 떨어지진 않는지?	▪ 과거 일자리 관련 업무는 경제국 소관이었으며, 업무추진의 동력저하, 업무량 감소 등이 되는 것은 아님.
○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시 효율성을 감안하여, 후지원의 방식도 검토 필요	▪ 충분히 공감함.
○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공공구매 비즈니스 플랫폼의 즉각적인 시정조치 필요	▪ 확실하게 재점검하여 정비하겠음.
○ 중복·유사한 사이트 및 플랫폼의 전수조사 및 통폐합 요구	▪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하겠음.
○ 라이브커머스 사업추진의 효과가 있는지?	▪ 지금까지 모두 완판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업 매출증대와 이미지 홍보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관련, 도비 투입에 대한 고민과 사업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관심 필요	▪ 더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음.
○ 지역기업 청년 희망이음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 필요	▪ 면밀하게 살피겠음.
○ 소상공인·중소기업·취약계층 등에 어려운 시국을 감안한 자금지원의 확대 검토 필요	▪ 예산 확대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음.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말야시장 사업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정책 확대 필요	▪ 동의함. 더 세밀하게 파악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겠음.
○ 일자리 정책 추진 시, 다양하고 세부적인 계층을 고려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 필요	▪ 알겠음.
○ 수출기업 인증지원 사업 관련, 업체 선정 기준은?	▪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으로 기업체를 평가하고 선정함.
○ 권역별 특화 수출사업의 업체 인증 지원 등 추진 시, 새로운 업체의 참여 기회 제공 필요	▪ 그렇게 하겠음.
○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사업 관련, 지원금의 부정 수급 등에 대한 자체계획 수립 및 점검 필요	▪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군 전수조사, 감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진술 요지
○ 전통시장·재래시장에 현실적인 소방 및 화재 대비 훈련 필요	▪ 알겠음.
○ 강원수출의 역량강화를 위해 출자 확대 및 적극적인 수출통로 마련 필요	▪ 동감하며, 내부검토 후 보고 드리겠음.
○ 강원더몰 등을 통해 상품성은 떨어지지만 가격이 저렴한 못난이 상품의 온라인 판매 활성화 필요	▪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음.
○ 청년 일자리와 관련하여, 세대별·연령별 세부적인 지원 정책 마련과 홍보 필요	▪ 알겠음.
○ 강원형 청년 안심소득의 적극 추진 및 운영 요구	▪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음.
○ 반려동물과 관련한 산업의 일자리 정책 적극 추진 필요	▪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음.
○ 실적이 미흡한 해외시장 강원상품관의 위치 변경에 대한 검토 필요	▪ 검토해보겠음.
○ 백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선정과 관련하여, 꾸준한 관심과 지원 필요	▪ 알겠음.
○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중, 일회성 사업으로 일몰된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계획 수립 필요	▪ 검토해 보겠음.
○ 운탄고도길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방송 등 지속적인 홍보 필요	▪ 시군과 고민하여 추진하겠음.
○ 신북방·신남방 수출시장 진출 사업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 필요	▪ 면밀하게 살핀 후 보고 드리겠음.
○ 강원상품권의 가맹점 확충과 부가가치세 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 그렇게 하겠음.

2 산업국 소관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진술 요지
○ 2018년 7월 법률 자문에 나온 플랜들을 이행하는 것이 강원도, 중도개발공사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옴.	▪ 자문결과대로 안 됐음. 7월 1일부터 업무를 맡으면서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함.
○ 회생신청 시 채권시장, 금융시장 혼란의 고려 없이 성급한 발표, 이로인해 강원도의 신용도 하락을 가져옴.	▪ 채권시장, 금융시장 이해가 부족했던 것은 뼈아프게 받아들임. 보증채무 이행 전제로 회생신청을 하였으나, 이후 언론보도 등 안타깝게 생각함.
○ 중도개발공사와 소통 부족 및 관리가 부족 하였음.	▪ 충분한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 처음부터 2,050억을 추경에 갚겠다고 발표하고 회생신청을 했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갚겠다는 의지가 부족하였음.	▪ 당초 2023년 11월 29일까지 갚으려던게 채권시장에 큰 파급이 있어 앞당겼을 뿐임, 반드시 갚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
○ 당시 BNK로 대출 금융기관 변경 이유와 BNK에서 이자율 상향시 금융기관을 변경할 수 있었다고 답변하였으나, 다른 금융기관을 찾지 못함. 결과적으로 BNK로 옮긴 것이 큰 화가 됨.	▪ 당시 BNK에서 이자율을 0.4% 낮은 금리를 제안하여 대출 주관사를 변경, 이자율 상승 시는 금리가 계속 인상되는 분위기로 다른 대출 주관사를 찾기가 어려웠고, 결과적으로 금리가 인상된 부분은 맞음.
○ 2,050억 중 선취이자 295억, 수수료 84억을 납부해 실수령액 1,671억원 밖에 안됨. 1,671억 지출결의서 제출 및 주주총회 자료 제출	▪ 자료 제출하겠음.
○ 중도에 엄청난 문화재의 보존 조치가 필요 하고, 유적박물관을 지어 레고랜드와 어우러져서 관광객 유입 계기 필요, 국비 확보방안 강구 및 지속적 관심 필요	▪ 잘 알겠음.
○ 레고랜드 2,050억 채무로 18개 시군 도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도민에게 못 쓰여져 피해를 봄, 강원도민에게 최소한의 사과 필요	▪ 위원님 말씀에 동감, 우량한 기업을 선정하여 다시 세입처리 하고자 함. 개인적으로 도민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진술 요지
○ 하중도 공사대금 136억 미지급으로 인해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음. 이중 도내 업체도 있고, 장비, 인력, 자재납품에 참여한 강원도민의 직접적 피해 예상, 해결책 필요	▪ 도내에서 힘들게 건설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림. 지휘부에서 두 번 정도 만났으나, 쉽지 않음. 건설교통국, 경제국과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음.
○ 2021년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지 매입 당시 강원도지사 땅을 강원도지사가 취득하는 행정행위를 함. 감사위원회에서 이 행정행위에 대해 감사를 권고	▪ 사실관계는 맞음. 배임 여부 등은 이 자리에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답변이 어려움. 감사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해보고,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음.
○ 반도체공장 원주유치에 비관적임. 원주에 올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은 어려움, 부지도 작고, 각종 규제가 심함. 몇 %의 가능성이 있으며, 물 관련 대책도 문제, 언제 결실을 볼 수 있겠는지?	▪ 대기업을 아닌 반도체산업 연관기업들을 입주시키는 작업을 진행중, 50% 이상이라고 생각하며, 총주담과 소양담에서 물을 사용할 수 있음. 3년 안에 중견기업급 반도체 연관 기업 1개 이상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 삼성, SK하이닉스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공장은 '27년 이후 대기업 반도체공장 유치 가능성 있음.
○ UAM 산업은 레드오션 시장으로 반도체보다 더 확률이 없다고 생각, 이 사업은 시제기 하나 만드는 것임. 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빨리 마련	▪ 조비에비에이션, 블로컴터 이런 기업들이 다 스타트업으로 시작, 회사를 방문해서 상세설계를 보고, 기체 경쟁력 부분을 현장에서 전문가들 의견을 같이 들어줬으면 좋겠음.
○ 중도개발공사 적자 412억이 합당한 자료인지,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 검토	▪ 그렇게 하겠음.
○ 경석자원화사업 연구소에 200억이 투입되었지만, 활용이 제대로 안됨, 기업유치도 강원랜드 넥스트유니콘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유치	▪ 폐광지원과를 통해서 무연탄 활용 탄소소재 흑연화 기술 개발사업, 2차전지 음극재 소재 개발 과제를 새롭게 진행.
○ 유적 관련 문제는 강원도에 전폭적인 책임이 있음. 국비 확보 등 유적공원 반드시 조성 필요	▪ 검토하겠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진술 요지
○ 동해·삼척 일원 수소 클러스터 관련 도에서 세심한 관리 및 기업유치 전략이 필요하고, 주민이 피해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당부	▪ 주민이 피해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음.
○ 테크노파크 원장 임명 시 논란되었던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진행 필요	▪ 별도 자문절차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정리하고 진행하겠음.
○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강원도 전체 시군을 아울러서 새로운 사업방향과 비전 제시 필요	▪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 발전시켜 나아가겠음.
○ 강원도 환경에 맞게 드론낚시, 방재산업, 농업 등 사업방향 전환 필요	▪ UAM을 개발하면 추후 군사용 등 상당히 무궁무진하게 활용분야 있음. 별도 보고 드리겠음.
○ 자동차산업 납품업체 유치 등 일자리 및 먹거리산업 육성 필요	▪ 디피코 및 부품 7개 업체 유치, 추가 기업들을 더 집적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수소충전소가 너무 부족, 더 많은 충전소 필요	▪ 충전소 확충에 노력하겠음.
○ 스크립스코리아 특허에 대한 소유권을 강원도가 소유하는 것에 대한 검토	▪ 검토하겠음.
○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도내 업체 이용 실적 부진, 도내 업체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 필요	▪ 그렇게 하겠음.
○ 가덕산 풍력발전단지의 경우 주민들에게 일부 이익이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타 사업 추진 시 주민들이 이익을 나눠가질 수 있는 방안 필요	▪ 주민들에게 환원 시킬수 있는 방법들을 특별자치도 법에 넣는 방법 검토하겠음.
○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선임 관련 강원도하고 중기부 오고간 문서 사본 제출 요청	▪ 제출하겠음.
○ 접경지, 폐광지 등 오지에 있는 농공단지에 유치되는 기업들에게 특별히 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재기출	▪ 제출하겠음.
○ 강원특별자치도법 법안 관련 공유 요청	▪ 그렇게 하겠음.
○ 중도 선사유적 문제에 대해 관심 필요	▪ 그렇게 하겠음.

③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진술 요지
○ 잦은 인사이동이 어려운 근무여건 때문은 아닌지?	▪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마련하겠음.
○ 북평지구의 경우, 당초계획 대비 부지가 축소된 사유는?	▪ 사업성 부족과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하겠음.
○ 옥계지구가 당초계획대로 유치기업의 직접적인 부지조성과 운영이 안된 이유는?	▪ 주된 이유는 당시 기업유치가 어려웠고, 현재는 해양수산부에서 연안·항만방재 연구센터를 유치하였음.
○ 앞으로 옥계지구에 어떤 기업을 유치할지에 대한 계획은?	▪ 2만평은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가 입주되었으며, 나머지 부지는 관련 부서에서 유치를 노력 중임.
○ 망상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용지 사용의 가장 집중적인 투자 목적은?	▪ 망상1지구 사업은 스포츠·복합관광도시 부분이나, 현재 사업자는 아파트 건설을 계획했고, 현재 거의 포기 상태임.
○ 북평지구와 옥계지구에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 기업 유치 노력 필요	▪ 검토 후 차근차근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 옥계 산업지구 중 연구센터 부지를 제외한 부지의 탄력적인 유치 전략수립 필요	▪ 맞춤 전략을 수립하겠음.
○ 공격적인 투자유치 및 홍보를 위한 새로운 대책 마련 필요	▪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음.
○ 조직 구성원의 철저한 복무관리 필요	▪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 옥계 산업지구의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유치는 긍정적이나, 부지 무상임대는 신중한 고민 필요	▪ 해당 센터 유치는 일자리·교육생·경제투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유치한 것임.
○ 망상 2·3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계획은?	▪ 시행사는 아직 미정이나, 투자자 유치는 진행 중이며, 남은 승인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의 변경과 관련하여, 조속하고 단호한 대응 필요	▪ 새롭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음.
○ 기관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 필요	▪ 자정능력 안을 마련하겠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진술 요지
○ 망상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토지 수용 및 보상 필요	▪ 토지수용 보상시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음.
○ 어려운 현 사회적 환경 속에서, 그간 미진했던 성과를 개선할 역동적인 조직 개선 방안 필요	▪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 외부 전문업체를 활용한 홍보·투자유치 추진 검토 필요	▪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4 강원도경제진흥원 소관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진술 요지
○ 해외 상품관 관련, 수출업체는 어떻게 선정되는지?	▪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강원도 해외본부를 통한 도 상품 수출 관련, 더 많은 상품들이 수출될 수 있는 전략 필요	▪ 많은 도내 상품이 수출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하겠음.
○ 경제진흥원의 불필요한 위탁 업무 대행 축소를 위한 도 관련 부서와의 협의 필요	▪ 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음.
○ 농특산물진품센터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관리 등 총체적인 재검토 필요	▪ 재검토하도록 하겠음.
○ 강원도 농특산물진품센터 '21년도 매출이 감소한 이유는?	▪ 마포지점이 위치한 도민회관의 리모델링 공사로 영업이 중지된 상황임.
○ 농수특산물진품센터 리모델링 공사 장기화로 인한 도내 상공인의 피해 방지를 위해 조속한 공사 필요	▪ 알겠음.
○ '20년도에 발생한 채무상환 관련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대응 상황은?	▪ 총 4차 변론까지 진행 중이며, 내년 초반에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함.
○ 신남방 수출 전략 관련, 사업들의 공고가 후반기에 나는 이유는?	▪ 용어를 다르게 사용했기 때문이며, 실제적으로는 6월에 공고를 시작함.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진술 요지
○ 해외법인과 직접 체결한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 필요	▪ 예산 낭비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음.
○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제한경쟁 입찰 계약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 필요	▪ 그렇게 하겠음.
○ 경제진흥원의 위탁업무 운영·관리 부분에 있어서 자율성 확보 필요	▪ 적극 공감하며, 자율성 확보에 노력하겠음.
○ 상품성은 떨어지지만 가격이 저렴한 못난이 상품의 온라인 판매 활성화 필요	▪ 검토하겠음.
○ 해외본부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예산증액 등의 실질적인 고민 필요	▪ 도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음.
○ 폐광지역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축소와 관련하여, 사업비 유지·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 그렇게 하겠음.
○ 지식 재산을 사업화 할 수 있는 검증 시스템 마련 필요	▪ 검증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 해외본부와 도의회가 수시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음	▪ 도와 협조해서 그렇게 하겠음.
○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소송 관련, 이로 인해 파생할 수 있는 문제와 유사 사례 방지에 대한 사전 방지 계획 수립 필요	▪ 그렇게 하겠음.

5 강원중도개발공사 소관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진술 요지
○ 한국투자증권에서 BNK투자증권으로 대출 변경 이유와 동의안 시 금융기관 변경 1년 만에 말이 번복	▪ 한국투자증권의 높은 금리와 토지 소유권 이전 등의 업무처리가 어려웠음, 전국장이 조금 잘못 생각해서 답변
○ 총 자산의 30%가 넘는 856억 원이 한정의견 제시 등 중도개발공사의 회계처리를 믿을 수 없음.	▪ 한정의견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거나, 기업회계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 주로 레고랜드 미취득 자산 800억에 대한 것임.
○ 영터리 같은 회계보고서 부실기업한테 채무를 해준 BNK와 최고등급을 준 신용평가사도 문제가 있음.	▪ 소통이나 선제대응 같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으나, 그런 타이밍이나 방법을 찾을 수 없었음.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진술 요지
○ '18년 자문에서 강원도 재정손실 및 배임 등 위법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대로 진행하여 향후 고발 또는 수사 등 가능성 있음.	▪ 당시 자문내용은 알지 못하며, 법적인 부분까지 고려하고 일을 다 할 수는 없음.
○ 중도개발공사는 강원도 사업파트너이자 출자출연기관인데, 회생신청 전 중도개발공사와 협의를 진행했어야 함.	▪ (산업국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
○ 기업회생 발표를 하고 회생절차에 들어갈지 말지를 검토하는 등 채권시장 상황도 모르고 선부른 발표를 하였음.	▪ (산업국장) 파산으로 갔을 때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도개발공사를 살리기 위하여 발표하였고, 왜곡된 부분이 있음.
○ 아이원제일차에서 2,050억 상환 공문을 보냈으나, 제대로된 답을 안했음.	▪ (산업국장) 9월 28, 29일 자로 공문을 받고, 9월 30일자로 보증채무 이행 공문을 발송하였음.
○ 이자 및 수수료 등 금융비용이 699억, 전체 지출의 15.38% 발생, UA 협약 당시 95억으로 판단	▪ 계획보다 좀 과다하게 늘어났다는 것은 인정
○ 높은 이자율과 유적지 발굴이 예상됨에도 사업을 강행하여 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예측에 대한 부분이 너무 없었음.	▪ 처음 너무 높은 금리에 약정을 하였고, 유적으로 보존지역이 늘어나 개발이익이 줄어들었음.
○ 회생절차를 밟기 이전 지적정리가 돼야지만 잔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	▪ 7월 환지사를 고용하여 문서상으로는 다 끝나고, 시에서 확정만 하면 되는 상황임.
○ 동부건설, STX 미지급 비용 등이 미반영되어 412억 원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재무예산에 미반영되어 있음.	▪ 에스컬레이션은 미반영되었으며, 기업회생신청 절차 전 동부에서 50%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협의
○ 문화재 유적공원박물관 사업 추진 부진	▪ (산업국장) 중도개발공사와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이견이 있음. 현재 법률적으로 도에서 직접 추진은 어려움.
○ 이번 문제는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 간 소통과 협력을 안 했기 때문	▪ 중도개발공사는 나름대로 도와 소통을 했다고 생각하고, 강원도는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음.
○ 이번 기업회생절차로 파생한 금융 문제는 강원도의 대처하는 능력 미비	▪ (산업국장) 강원도는 채무를 이행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차분하게 사실만을 다 공개하면서 언론에 그런 부분들을 제출할 계획.
○ 컨벤션센터 부지매입은 강원도지사가 강원도지사 땅을 사겠다고 행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회를 기만하고, 배임 가능성 등의 논의가 있었는데도 강행	▪ 자금 사정으로 잔금을 못 줘서 소유권 이전을 못 받았던 것임.

주요 감사실시(질의) 사항	증언·진술 요지
○ 토지매각을 위한 환지정리 지연으로 동부 건설 준공금 지급 등의 문제 발생	▪ 초창기는 공사 문제 및 지식,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안됐으며, 춘천시와 협의 과정에서 환지사 고용이 늦어졌음.
○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가 머리를 맞대고 사태해결 진행 필요	▪ (산업국장) 알겠음.
○ 412억 원을 못 갚아서 회생신청을 한 강원도가 2,050억을 어떻게 구하는지, 강원도 업무 처리가 미숙했고 성급했음.	▪ (산업국장) 412억 원을 못 갚아서가 아니고, 채무를 줄여보려고 한 것이며, 당시 발표에도 채무보증 이행을 반드시 한다고 하였음.
○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면 계약자들의 권리는 사라지고, 누군가에게 팔게 되는 것은 공공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음.	▪ (산업국장) 공공기관에서 내세우기는 조금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소송, 실력행사, 점거 등 문제 발생 우려 있음.
○ 중도개발공사 자료가 미흡하고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며, 보증채무자인 강원도와 도의회에서도 살펴봐야 하는 기관이나, 충분치 않았음.	▪ 인수위때도 제출했고, 실시간으로 거의 레고랜드지원과랑 공유를 많이함. 단지, 초기 계약서, 통장 등은 수사상 목적 외는 유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 강원도도 다리건설 등 기반시설 조성과 토지매입 등 노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잘못	▪ 그런 부분에 서운한 것이 아니라, 중도개발공사가 아무런 노력없이 혈세만 잡아먹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설명
○ 중도개발공사 추가대출은 강원도 대출약정 덕분이며, 지출 시 도에서 돈에 대해 지출하겠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을텐데, 전후 사정을 잘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쉬움.	▪ 강원도의 담보가 있어서 가능하였고, 금융기관이 돈을 확보할 수 있다고 확인해서 돈을 빌려주었음.
○ 대출 상환을 했을 때 정상적인 회사로 환원 가능한지?	▪ 수입, 토지대금, 지출 등 정상적인 경영행위는 가능하나, 추가적인 금융거래는 할 수 없을 것 같음.
○ 기업 회생신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추후 계획과 향후 대비책이 필요함.	▪ (산업국장) 지금 기업 이미지가 나빠지면서 M&A가 안될 때, GJC를 중심으로 경영혁신으로 가는 방법이 최종 대안임.
○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협의해서 모색해야함.	▪ (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음.
○ 2017년부터 2022년까지 4차례에 걸쳐 문화재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리에 대한 계획조차 되지 않음. 부채상환과 중도 선사유적에 대한 특별한 계획 강구	▪ (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음.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① 기관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72건

부서별	경제국	산업국	동해안권경제 자유구역청	강원도 경제진흥원	강원중도 개발공사
건 수	28	17	10	14	3

□ 경제국 : 28건

1. 청년 일자리와 관련하여, 세대별·연령별 세부적인 지원 정책 마련 필요
2. 도내 청년들을 붙잡을 수 있는 도 청년일자리 정책들의 적극적인 홍보 필요
3.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공공구매비즈니스플랫폼의 즉각적인 시정조치 필요
4. 경제국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중복·유사한 사이트 및 플랫폼의 전수 조사 및 통폐합 요구
5.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관련, 도비 투입에 대한 고민과 사업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관심 필요
6. 지역기업 청년 희망이음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 필요
7. 소상공인·중소기업·취약계층 등에 어려운 시국을 감안한 자금지원의 확대 검토 요구
8.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말야시장 사업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정책 확대 필요
9. 다양하고 세부적인 계층을 고려한 다각적인 일자리정책 추진 필요
10. 권역별 특화 수출사업의 업체 인증 지원 등 추진 시, 새로운 업체의 참여 기회 제공 필요
11.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사업 관련, 지원금의 부정 수급 등에 대한 자체계획 수립 및 점검 필요
12. 전통시장·재래시장에 현실적인 소방 및 화재대비 훈련 필요
13. 강원수출의 역량강화를 위해 출자 확대 및 적극적인 수출통로 마련 필요
14. 강원더몰 등을 통해 상품성은 떨어지지만 가격이 저렴한 못난이 상품의 온라인 판매 활성화 필요
15. 반려동물과 관련한 산업의 일자리 정책 적극 추진 요구

16. 백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선정과 관련하여, 꾸준한 관심과 지원 필요
17. 경제국 소관 23개 각종 위원회의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운영 요구
18. 운탄고도길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방송 등 지속적인 홍보 필요
19. 신북방·신남방 수출시장 진출 사업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 필요
20. 일단시켜 앱의 도비 및 시군비 투입과 관련하여, 예산 집행의 관리·감독 요구
21. 실적이 미흡한 해외시장 강원상품관의 위치 변경에 대한 검토 필요
22. 강원형 청년 안심소득의 적극 추진 및 운영 요구
23. 강원상품권의 가맹점 확충과 부가가치세 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24.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중, 일회성 사업으로 일몰된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계획 수립 요구
25. 폐광지역 외 시·군에 거주하는 진폐증 환자 및 가족을 위한 정책 발굴 필요
26. 일단시켜 사업공모 전 사전만남 등 문제점에 대한 감사 및 법조인 검토 요청
27.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28. 지역화폐의 국비 지원 축소에 대한 대책 마련

□ 산업국 : 17건

1. 중도개발공사의 철저한 관리·감독 등 관리 방안 마련 필요
2. 문화재 보존조치 및 유적박물관 등을 위한 국비 확보 등 필요
3. 2,050억 채무 조기 상환으로 18개 시·군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
4. 하중도 공사대금 136억 미지급으로 참여업체 및 도민들이 피해, 해결책 강구
5.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지 매매 행정행위와 관련 감사위원회 감사 권고
6. 중도개발공사 재무제표 및 적자 412억 원 관련 전문회계법인 검토 필요
7. 동해·삼척 일원 수소 클러스터 사업 관련 세밀한 운영·유치 전략 수립
8. 테크노파크 원장 임명 시 논란이 되었던 부분 정리 후 임명 추진 권고
9. 강원도혁신발전지원센터의 새로운 사업방향과 비전 제시 필요
10. 강원도 환경에 맞는 드론낚시, 방재산업, 농업 등 사업방향 전환 검토
11. 자동차산업 납품업체 유치 등 일자리 및 먹거리산업 육성 검토
12. 수소충전소가 너무 부족, 더 많은 충전소 설치 필요

13.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특허 소유권 및 수익에 강원도 지분 검토
14. 코로나19 진단키트 도내업체 이용실적 부진, 도내업체 활용 노력 요구
15. 가덕산 풍력발전단지과 같이 주민들과 이익을 나눠가질 수 있는 방안 검토
16. 강원도테크노파크 원장 선임 관련 강원도-중기부 간 문서 사본 제출
17. 접경지, 폐광지 등 오지에 있는 농공단지에 유치되는 기업 유치 전략 검토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 10건

1. 북평지구 및 옥계지구에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 기업유치 노력 필요
2.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의 변경과 관련하여, 조속하고 단호한 대응 요구
3. 옥계 산업지구 중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부지를 제외한 부지의 탄력적인 기업유치 전략 수립 강구
4. 공격적인 투자유치 및 홍보를 위한 새로운 대책 마련 필요
5. 조직 구성원의 철저한 복무관리 필요
6. 기관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
7. 옥계 산업지구의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부지 무상임대는 신중한 고민 필요
8. 망상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토지 수용 및 보상 필요
9. 어려운 현 사회적 환경 속에서, 그간 미진했던 성과를 개선할 역동적인 조직 개선방안 필요
10. 외부 전문업체를 활용한 홍보·투자유치 추진 검토 필요

□ 강원도경제진흥원 : 14건

1. 해외본부를 통한 도 상품 수출 관련, 더 많은 상품들이 수출될 수 있는 전략 마련 요구
2. 불필요한 위탁 업무 대행 축소를 위한 도 관련 부서와의 협의 필요
3. 농특산물진품센터 위탁사업 관련, 홈페이지 관리 등 총체적인 재검토 필요
4. 농수특산물진품센터 리모델링 공사 장기화로 인한 도내 상공인의 피해 방지를 위해 조속한 공사 필요

5. 진흥원에서 해외 법인과 직접 체결한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 필요
6.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 초과근무 시간, 연차수당 등 처우개선에 대한 관심 필요
7.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제한경쟁 입찰 계약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 필요
8. 경제진흥원의 위탁업무 운영·관리 부분에 있어서 자율성 확보 필요
9. 상품성은 떨어지지만 가격이 저렴한 못난이 상품의 온라인 판매 활성화 필요
10. 해외본부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예산증액 등의 실질적인 고민 필요
11. 폐광지역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유지·확대 노력 필요
12. 지식 재산을 사업화 할 수 있는 검증 시스템 마련
13. 해외본부와 의회가 수시로 소통하고, 정보 공유 할 수 있도록 도와의 협의 필요
14.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소송 관련, 이로 인해 파생할 수 있는 문제와 유사 사례 방지에 대한 사전 방지 계획 수립 필요

□ 강원중도개발공사 : 3건

1.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가 협의하여 지금 상황을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강구
2. 기업 회생신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추후계획 및 대비책 필요
3. 부채 상환 문제와 중도 선사유적에 대한 특별한 계획 강구